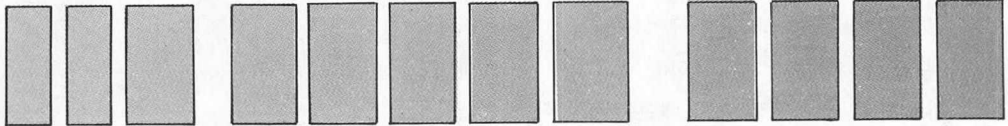


# '87년 양돈경기를 전망한다



문 기 한  
(축협중앙회 축산관측과장)

## 1. 사육동향과 전망

### 가. 동향

#### (1) 총두수 동향

금년 9월 총두수는 1년전('85. 9월) 보다는 383천두(12.7%)가 증가하였으며, 3개월('86. 6월) 전 보다는 465천두(15.9%)로 크게 증가하였다.

총두수 증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모든 두수를 보면 '86. 9월이 1년전 보다는 65천두(15.4%)가 증가하였으며, 3개월전 보다는 43천두(9.7%)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 두수는 증가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은 83년도의 상반기 증가추세와 비슷한 것을 총두수 측면이나 모돈두수 측면이나, 사료생산 측면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 (2) 월령별 두수 동향

'86년 6월에 비하여 9월에는 2개월령 미만은 25.5% 증가하였으며, 4~6개월령은 37.

※ 돼지 사육호수 및 두수현황 (천호·천두)

구 분	'86. 9	'86. 6	'85. 9	대 비 (%)	
	(1)	(2)	(3)	(1/2)	(1/3)
사 육 호 수	245	238	291	102.9	84.2
총 두 수	3,397	2,932	3,014	115.9	112.7
2개월미만	1,122	894	957	125.5	117.2
2~4개월	1,116	1,095	1,005	101.9	111.0
4~6개월	617	449	569	137.4	108.4
6~8개월	85	71	75	119.7	113.3
8개월 이상	457	423	408	108.0	112.0
모 돈 수	487	444	422	109.7	115.4
8개월 이상	430	399	382	107.8	112.6
6~8개월	57	45	40	126.7	142.5

## 금년말에는 3500천두로 증가될 예상이며 87년 3~6월에는 3600천두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

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출하 예비돈의 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배합사료 생산실적을 보면 금년 9월 생산량이 1년전 동기에 비하여 37%가 증가되어 두수 증가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 양돈 배합사료 생산실적 (천M/T)

구 분	85. 8	9	11	86. 2	5	8	9
총 생산량	152	153	177	151	164	172	196
젓 먹 이	28	31	39	27	40	38	44
육 성 용	79	76	86	73	68	81	87
모 돈 용	16	17	18	21	22	21	25

### 나. 전 망

'83년도 하반기에 사료생산 실적은 194 천톤('83. 9월)이며 총두수가 3,721천두('83. 9월), 모돈수가 609천두('83. 12월)로 증가하던데 돼지 가격이 폭락하여 이듬해인 '84년 초에는 돼지 수매까지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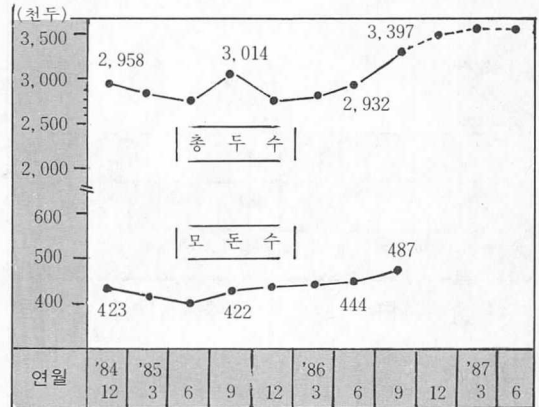
그리하여 '84. 6월부터 '86. 6월까지 2년간은 사육마리수가 매우 안정되었고, 따라서 돼지값도 장기간 호황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금년 9월부터는 다시 급격한 증가세로 돌아 들었는데 금년말에는 3,500천두로 증가될 예상이며 87년 3~6월에는 3,600천두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소비량과 돼지값을 고려한다면 돼지사육 마리수는 3,100천두 내외가 되는 것이 좋겠다는 경험적인 판단을 하여 본다.

돼지 두수가 급격히 증가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돼지가격의 장기간 호황에 따른 사육의욕 증

※ 돼지 두수 변동



대와 모돈 두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50만두를 육박하고 있으며 소값 침체에 따른 돼지로의 전환 사육경향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소사육 농가는 1,023천호, 돼지사육 농가는 245천호 라고 금년 9월 통계는 밝혔는데 이는 3개월전인 6월보다 소사육 호수는 3만호가 감소한 반면 돼지 사육호수는 7천호가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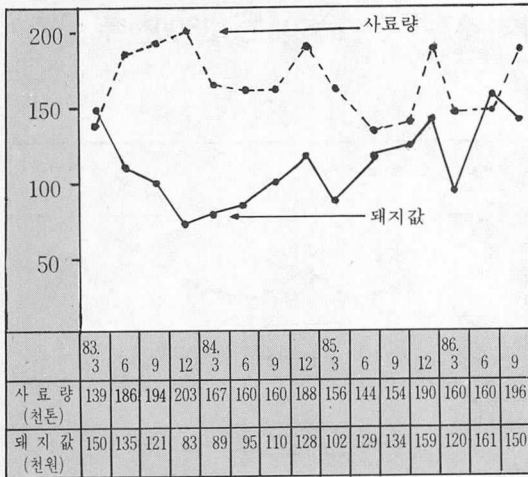
## 2. 가격동향과 전망

### 가. 동 향

먼저 도축·소비를 보면 '85년보다는 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86년의 돼지가격이 '85년보다 높았으며 돼지두수가 적정수준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큰돼지(90kg) 가격은 '85년 5월 이후 86년 9월까지 장기간 호황을 지속하여 왔으나 '86년 10월부터는 하락세를 보여 11월초 현재 두당 128천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돈가격은 85년 3월 이후 금년 10월까지 상승세를 보였

○사료량과 돼지값 변동



으나 11월부터는 약세를 나타내어 마리당 47천원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돼지사육 두수를 비슷하게 표현하고 있는 배합사료 생산실적과 돼지값과의 변동 추이를 보면 사료량이 190천톤을 벗어나면 돼지값은 떨어지고, 155천톤 내외면 좋은 돼지값은 형성하는 것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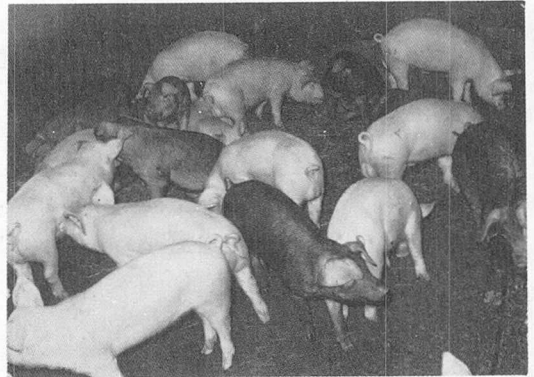
나. 전 망

금년말까지는 마리당(90kg) 120천원선을 당분간 유지하겠으나 '87년 하반기에는 큰 폭의 하락세가 예상된다.

금년말까지는 보합세가 유지되리라고 보는 이유는 출하 적령돈의 안정('86년 9월 통계의 2~4개월령 두수 안정)과 겨울철 및 연말과 민속절의 수요 증가에 그 근거를 둘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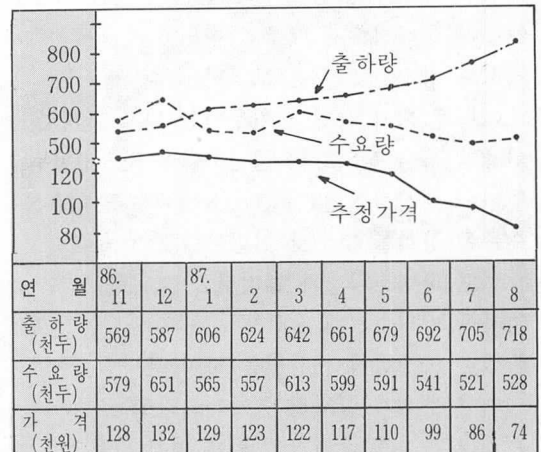
'87년 6월이후 큰 폭의 하락세를 예상하는 것은 돼지값의 장기간 호황에 따른 사육의욕 증대(모돈 및 후보돈 확보), 소값 침체에 따른 돼지 전환 사육의 농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농가와 사료 생산실적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출하두수와 소비두수를 추정하여 가격을 추정하여 보면 '87년 6월이후에는 두당 10만선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때의 수급량 추정은 모돈두수가 계속 증가하여 금년말에는 530천두, '87년 봄에는 560천두 수준이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상황 즉, 이렇게 모돈두수가 증가하지 않고, 전체고, 전체 양돈가가 협력하여 현재의 모돈두수를 압축하거나 현상유지를 한다면 가격은 예측치대로 폭락하지 않고 안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처럼 축산관측의 목적은 앞으로의 경기변동을 미리 알려 주어서 사육두수를 적정하게 사육하며 이에따라 돼지값도 안정시키자는데 있는 것이다.

○돼지수급 및 가격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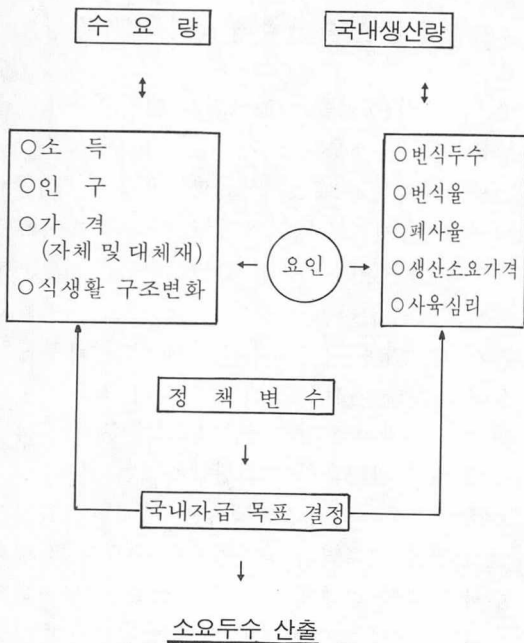
### 3. 돼지 소요두수 유도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돼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돼지두수를 적정하게 사육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의 경험으로도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84년 6월부터 '86년 6월까지 약 4년간에 걸쳐 돼지 총두수가 2,900~3,200천두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돼지값도 호황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적정사육 두수를 산출하기 위하여는 수요량을 판단해야 하는데 이 수요량은 소득, 인구, 자체가격 및 대체제가격, 식생활 구조변화에 따라

○소요두수 유도 과정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 국내 자급목표라는 정책변수까지 고려할 때 매우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도 번식율, 폐사율, 생산자재의 가격, 사육심리 등에 따라 변동하게 된다.

이와같이 수요와 공급량이 변동하면 자연히 가격도 변동하고 이에따라 또 수급량이 변화되어 적정두수 산출을 달라지는 등 이러한 순환은 지속된다.

그렇지만 수요량의 변동이 터무니 없이 많지는 않은데, 연간 돈육수요량을 340~360 천톤으로 가정할 때 이의 공급에 필요한 돼지 소요두수는 2,900~3,300천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산출된다. 이 범위를 상회하게 되면 돼지값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 4. 양축가의 자세

우리 양축가의 입장에서는 자율적 사육조절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자율적 조절없이 과잉 생산이 되어서 가격이 폭락할때 정부가 수매만 해 준다고 해서 가격은 안정될 수 없다고 본다. 설령 수매를 한다면 손 치더라도 자금사정, 냉동창고사정, 그리고 많은 매상 물량 때문에 수매하는 노력에 비하여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축산물의 가격을 장기적으로 탄탄하게 안정시키려면 생산자는 소비사정에 알맞는 마리수만큼 사육을 조절하면서 사육비를 절감하고 우량가축을 사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축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생산자는 소비 사정에 알맞는 마리수 만큼 사육을 조절하면서 사육비를 절감하고 우량가축을 사육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